

나의 소명 이야기

윤덕영 목사(청년교구담당)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이었으나, 안수를 앞둔 지금은 두렵고 혼란스럽다. 목사는 내가 오랫동안 되기를 희망해 왔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비판해오고 판단해오던 대상이 아니던가.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선다고 하니 두려워진다. 아버지가 목사여서 목사직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또 목회 현장을 보면서 자랐다.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다. 적어도 의식적으로는 목회자에 대하여 나 자신과 타인들이 기대하는 바가 높고, 그와 함께 저야할지도 모르는 비판의 짐을 지기가 싫었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군대 생활 동안에 성경적 상담을 통한 치유사역에 쓰임받고 싶은 비전이 생겼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 어느 목사님과 진로상담을 하는데, 성경적 상담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신학교에 가야 되겠네"라는 짧은 답변을 하셔서 무성의하다고 느껴 다소 놀라워했지만, 신중히 생각하고 준비하여 94년도에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그 목사님의 조언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학교를 가게 된 동기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인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하고 나 스스로가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다. 신학교에서의 생활은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다. 신학 수업은 재미있었고, 다양한 소명을 가진 사람들과 한 지붕 식구처럼 함께 사귀고 예배드리는데 참 좋았다. 동료들과의 우정과 신뢰는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독서와 현장을 통해서 삶과 신앙에 좋은 안내자가 되는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다. 신학대학원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이지만 그 때까지만 해도 목회자가 되겠다는 내적인 확신이나 소명은 뚜렷하지 않았다.

목회자가 되겠다는 부르심을 깨닫게 된 것은 어느 선생님과 만남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신학교 때 미국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친 후, 임상과 상담을 제대로 경험해 보고 싶다는 목마름이 있어서, 테네시 주의 한 병원에서 목회 임상교육을 받을 때 신뢰할 만한 한 선생님을 만났다. 그 분은 그 병원의 원목이셨는데, 말을 아끼고 분별력이 있으며 정곡을 찌르는 질문으로 고민하는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시곤 하셨다. 어느 날 그 분과 차 안에서 나눈 짧은 대화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된 지금의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준다. "사람들은 진리가 주는 자유보다는 빵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진리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요 8:32)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과 성공을 나누어주며 교회의 권위에 굴종하게 만들고 있고 때로는 사람을 우매하게 만듭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는 데 대한 은근한 거부감과 회의적인 느낌을 슬쩍 내비쳤을 때, "덕영! 자네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목회를 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 목회는 너무 이상적이고 말씀처럼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비전에 맞는 교회를 찾기가 힘들어요."라고 체념조로 말했다. "그럼 자네가 개척하면 되지 않는가." 하셨다. "개척이라고요?" 정말로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말이라 놀라서 되물었다. "그래 자네가 그 길을 가면 뜻을 같이하는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하시면서 선생님께서 나의 첫번째 후원자가 되어 주겠다고 격려해주셨다. 목회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는 풋내기 신학생이었지만, 그 대화를 통하여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이 흥분되는 비전에 나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 열정이 은은하게 생겨났고, 개척자의 각오로 이 사역에 도전해보고 싶은 용기와 설렘이 마음에서 샘솟았다. 이때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의 길로 부르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되라.' (→ 3면으로)

함 즐 무 을

함즐함울 :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제 39 호 (격월간)

발행일 2002년 11월

발행처 주님의교회 출판부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우편번호 138-220

(정신여중·고교내)

tel. 02-416-5181~2

fax. 02-416-518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ord-church.or.kr>

차 례

- 1 목회자칼럼 / 윤덕영 목사
- 2 시론 / 김우림 협동장로
- 3 평양방문기 / 우숙 권사
- 4 자원봉사 체험기 / 이찬구
- 5 독후감1 / 윤복신 집사
- 6 독후감2 / 박여름
- 7 수필 / 김수호
- 8 교회 소식
- 9 선교 소식 / 백경숙 선교사
시 / 정해춘 안수집사
- 10 성경 퍼즐
알립니다

우리가 지금 선 자리는?

김우림 협동장로(충성 1구역)



요즘 들어 개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말이 되었다. 사회 각 분야마다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혁없이 우리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들 이야기 하고 있다. 한편 우리는 과거 수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바람으로 입장과 처지가 정반대로 바뀌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변화의 회오리 속에서도 오히려 빛을 더욱 발하는 것을 보아왔다. 이러한 개혁 대상의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황금(mamon, 돈)이 자리하고 있었다.

우리는 돈으로 명예를 사고 권위도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황금만능사상은 세속사회에서만 만연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까지 알게 모르게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타협의 관계로 변해가고 있어 교회의 영향력이 점차 약해져 가고 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돈의 유혹이 총보다 더 무서운 핏박이 되었다. 일찍이 미가 선지자가 "왕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샅을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미가 3:11)."고 책망했던 모습이, 오늘에도 이 사회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외형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교회성장과 목회성공을 판단하는 풍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와 가치관을 다시 점검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이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첫째,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 잘못 정립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부가 우리의 소유인 줄 알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현재의 소유에 관한 사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는 획득한 사함의 소유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상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부는 국가의 소유라는 사회주의 사상이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만물과 부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다(시편 24:1).

그래서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요(창 1:26), 청지기(시 8:6)라고 말하고 있다. 청지기는 남의 재물을 맡아 선하게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청지기는 소유주(主人)의 뜻에 합당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마 25: 14~30). 이같은 청지기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맡아 관리하는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둘째로, 직업윤리관을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막스 웨버는 자본주의 정신은 청도교 정신-근검, 절약, 청빈과 직업에 대한 소명(召命 : Calling)이라고 말했다. 즉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직업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직업을 단순히 생계의 수단이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선교자적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것은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려는 이분법적 사고방식 때문이라 생각된다. 교회의 생활은 성스러운 것이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의 생활은 속된 것이라는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태도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각 분야의 구각(舊殼)을 털어버리고 그동안 모든 분야에 쌓인 오물을 깨끗이 청소하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일에 앞장서야 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도자들이 연대적 책임을 깨닫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징계하셨지만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물으셨다. 또한 거듭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가장 민주적인 공동체, 투명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차제에 우리 주님의교회에도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인 부분들이 없는지 살펴서 이 시대가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구원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요구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과연 당당히 그 합리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리인지를 되돌아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봉수교회에서의 주일예배

우숙 권사(희락 5구역)



저는 지난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KBS 교향악단과 북한 조선인민교향악단의 추석 합동연주를 위해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2년 전 서울에 와서 같이 연주했던 조선인민교향악단 단원들과 반가이 재회하고 또 봉화예술극장에서 합동으로 아리랑을 연주한 것도 감격스러웠지만 저에게는 유서 깊은 평양의 봉수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린 것이 더 은혜로웠습니다.

평양에 가기 전부터 새벽기도회에 가면 서울로 돌아오는 날이 주일이므로 봉수교회에서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 드렸습니다. 평양에 도착해서도 교향악단의 기도회 회원 몇 명이 아침 7시 반이면 고려호텔 제 방에 모여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기도회 회원 중의 한 사람이 다니는 교회의 집사님이 KBS의 고위 간부로 이번 행사를 위해 함께 평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주셨구나”하고 그 집사님께 달려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한 번 생각해보겠다”더니, 이튿날 도저히 안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행사의 실무자인 KBS의 C부장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언행이 좀 지나치다고 해서 ‘오버맨(overman)’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 교향악단 단원들과 별로 가깝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C부장을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며 봉수교회에 갈 수 있게 주선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이미 모든 일정이 다 잡혀 있을 뿐 아니라 몇 명의 예배 참석을 위해 다른 차편을 마련할 수 없다며 어렵다고 하고, 택시라도 타고 북측 안내원과 함께 다녀오도록 해 달라고도 사정해 봤지만 개인 행동은 일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차차 가능성을 찾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 마지막 연

주가 끝나고 양강도 호텔에서 만찬을 마치고 나오는데 C부장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왕 오는 김에 특별연주까지 부탁한다고 해서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준비했습니다. 예배에 참석을 희망하는 인원을 파악해보니 교향악단, 참관단을 포함해서 모두 70명이나 되었고 버스가 2대가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몇 명의 주일예배를 위해 시작한 일이 이렇게 확대되고 보니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가 새삼 생각났습니다.

드디어 주일날 아침 기쁨과 설렘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는 길에 평양 지하철을 꼭 보고 가야 된다고 해서 봉수교회에는 예배 시작 시간인 10시를 20분이나 넘겨서 도착했습니다. 아담하고 깔끔한 교회 건물이 조그만 언덕 위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250석 정도 되는 예배당의 뒤편 쪽에 100여 명의 북한 신도



평양 봉수교회(1988년 건립)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에 목회자의 길을 가다가 때로는 넘어지겠지만, 목사로서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한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잠24:16). 목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분명하다.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며 사람들에게 대하여 진실하고 성

실한 것이다. 인간적인 업적보다는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5).’

들이 자리잡고 앞쪽은 우리를 위해 비워두고 예배를 시작하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배 순서는 우리와 거의 같았고, 30여 명의 성가대도 있었습니다. 주보는 그 주만을 위한 일회용이 아니라 봉수교회 소개 팸플렛 같은 것이었으며 내용은 모두 김정일 부자 덕분에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손효순 목사님이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설교해주셨습니다.

예배의 순서가 끝난 후 목사님께서 남조선에서 온 KBS 교향악단이 특별연주로 찬송가 40장을 연주한다는 안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찬송가 책을 보니 우리 것 40장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당황해서 무엇으로 대체할까 급히 찾아보다 옆에 있던 한 단원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러기로 하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382장(우리 찬송 248장)을 다 함께 부르자고 말했습니다. 7명의 현악기 반주로 모두 일어서서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악보를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
: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북한과 우리의 찬송가가 달라서 얼떨결에 고른 것이 어떻게 이렇게 가사 하나하나까지 이 현실에 그대로 꼭 들어맞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곳 교인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선물도 전하고 싶었지만 안내원들이 접촉을 막고 일정이 바쁘다며 몰아치는 바람에 아쉬움을 남기고 다시 버스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 교인들은 모두 동원된 사람이고 예배도 짜여진 각본이라는 말도 들었지만 손 목사님의 온화하고 그윽한 눈빛, 성가대원 몇몇이 예배 도중 울음을 참는 듯 목덜미가 떨리는 것을 보며 그 돌짜발 같은 토양에서도 말씀의 씨앗은 싹트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한 권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그 쪽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차마 그러지 못했던 북한 찬송가집 한 권이 제 악기 보따리 속에 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짐을 싸느라 휩쓸려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봉수교회의 주일예배는 앞으로 제 신앙의 지주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체험기

세상을 버려야 세상을 얻는다

이찬구(청년2부)



강원도 삼척에 도착 직후의 느낌은 별다른 것은 없었다. 자원봉사의 목적으로 이곳에 왔지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본 적도 없었을 뿐더러, 나에겐 개인적인 고민과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버스에 몸을 싣고 삼척에 도착하면서도 난 그런 상황들을 내 개인적인 이유에서 맞이하고 있었다. 막상 삼척으로 떠나려니 용기가 나질 않았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스러웠지만 취직 시험을 앞두고 있었기에 쉽게 그 시간을 버릴 수가 없었다. 1년 넘게 백수로 있으면서 나에게 쏟아지는 비아냥과 걱정의 이야기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만 같았다. 연민의 정보다는 알 수 없는 의무감과 개인적 걱정이

더 다가왔던 여정이었다.

바람에 날아 들어온 흙과 돌로 덮여버린 논과, 얼굴 한쪽이 덩그러니 사라져버린 교각들, 팔다리만 간신히 남아 천장을 힘겹게 들어올리고 있는 이름뿐인 집 몇 채와 그나마 팔다리조차 잘려버린 또 다른 이의 삶터, 실려온 흙더미가 1미터 넘게 쌓인 축사와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던 곳. 빗물에 불고 찢겨진 몇 개의 사진첩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농기구들, 비에 젖어 아귀조차 맞지 않는 책상과 장롱, 그리고 애써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려는 서랍들, 흙인지 돌인지 알 수 없는 마늘과 애써 지켜왔던 삶의 자취들, 더 이상 비에 젖지 않기 위해 마련했던 비닐하우스의 안쓰러운 버팀목, 그리고 곰팡이가 새 집으로 선택했고 흙이 가득 차 건반조차 누를 수 없었던 피아노에 이르기까

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던 그곳.

정리하는 일만 해도 몇 달이 걸리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도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태풍과 호우가 가져간 것들은 너무나 많았다. 수십 년을 함께 해온 삶의 터전과 행복한 기억들, 그들이 힘들게 지켜왔던 그네들의 인생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아무 것도 남기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가져가셨을까? 수십 년을 피땀 흘려 일궈온 그들의 삶과 터전을 왜 이토록 메마른 황야로 만드신 것일까?

나무에 열매가 없고, 나무 자체도 없고, 논과 밭에 작물이 없고, 논과 밭 그 자체도 없으며, 양도, 소도 없고, 우리도 외양간도 없어졌지만,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보았고, 그로 인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곳엔 집도 없고, 논도 없고, 다리도 없고 길도 없었지만 또한

절망도 없었고, 좌절도 없었으며, 실망도 억울함도 없었다. 원래 있었던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묵묵히 일할 뿐이었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불평보다는 감사로, 눈물보다는 미소로, 절망보다는 희망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은 물질적인 것이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었고 세상의 것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매우 아쉬워하고 슬퍼한다. 세상의 것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 놓으신 것은 물질 그 이상의 것이었다.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것이었고, 하나님 세상의 것이었다. 이제야 그가 남겨 주신 뜻을 알 것 같다. 세상을 버려야 참 세상을 얻는다는 진리를. 단 3일간의 봉사로서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또한 그 어떤 말과 글로도 그것을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저 죄송한 마음 뿐이다.

독 후 감 1

켄 가이거의 「고통의 은혜」

윤복신 집사(사랑 10구역)



우리에게는 자연을 다스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 권리가 얼마나 유한한지 알면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다. 촛불을 밝힐 수 있지만 밤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폭풍우에 대비할 수 있지만 폭풍우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홍수 때 비를 그치게도 못하고, 가뭄 때 비가 내리게도 못한다. 겨울을 단축시키지도, 봄을 연장시키지도 못한다. 자연을 보며 우리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의 한계에 직면한다.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삶에 찾아와 우리를 무너뜨릴 때도 무력하기는 마찬가지다. 어린 자녀의 죽음, 암 선고, 가출하여 방탕하게 사는 자녀, 파산으로 인한 능력 상실, 갑작스럽게 받은 해고통지서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 삶에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을 모르고 계셨단 말인가? 그것을 막아주실 수는 없었는가? 아니, 최소한 경고는 해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깊고도 괴로운 일을 그냥 견디는 것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만 계셨는지, 그 의문에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던진 의문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날이 언제 올지 그 누가 알겠는가? 우리가 아는 것이라곤 언젠가는 그런 날이 꼭 오리라는 것뿐이다.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도 그러했다. 우리도 역시 아무 답변도 없는 날을 맞게 될 것이다.

세상은 우연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고, 나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기 마련이다. 우리는 그저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면서, 오늘은 내게 불행이 일어나지 않은 행운에 감사하며 지내면 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문제는 훨씬 간단할 것이다.

은 세상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순간, 우리 인생의 황무함은 그 순간 개간되기 시작한다. 그 시작은 하룻밤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데서 출발하며 '언젠가' 반드시 회복 될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라는 약속만으로 충분하지 못할 때가 있다. 우리는 '오늘'의 삶을 이어나갈 만한 이유를 생각해 내려고 애쓴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이유를 '오늘' 찾을 수 없다. 이처럼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유일한 씨앗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뿐이다. 우리는 할 수 있든 없든 기도해야 한다. 사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기도해야 한다.

메시아는 상한 갈대와 꺾여가는 등불에게 찾아오셨다. 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찾아 오셨다. 도덕적으

로 불구된 사람,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 육체적으로 고통 당하는 사람,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 그분은 삶을 뒤흔드는 상실로 인해 인생이 황폐해진 사람에게, 정신을 빼앗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평판이 좋지 않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건강을 잃은 문둥병자에게,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찾아오셨다. 상한 심령은 오늘도 여전히 그 분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만물을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전 3:11).

다윗과 밧세바의 가장 추악한 결합을 통해 구세주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의 가장 추악한 죄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데는, 한 사람의 평생이 걸릴지, 몇백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의 풍파가 있는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화강암이 풍화되어 흙이 되게 하시고, 바람에 날아온 씨앗을 비탈진 불모의 땅에 심으시며, 생명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고, 추한 것에서 아름다운 것이 나오도록 역사하신다.

계절이 바뀌어도 그 역사는 계속된다.

때가 되면.....

독 후 감 2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읽고

박여름(고등부)



'이것은 책이 아니다. 책이라면 악서이고 그것마저도 엄청난 일이다.'

이 책의 맨 처음 나오는 문장이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의 그 당황스러움이란... 이 책은 아무것도 밑도 끝도 없이 마치 그냥 노트에 적어 놓은 글들을 모아 책으로 묶어 놓은 듯 했다. 정말 보편성이라고는 문자라는 것 외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 책이라고 생각했다. 문장이나 글들이 난해하거나 어려운 것은 아닌데 내용 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았다. 마치 머리 속에 있는 생각들을 모두 몰아다가 문자로 옮겨 놓은 느낌이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관이나 양심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문장들..... 나는 이런 생각들을 글로 옮길 수 있는 이 사람이 궁금해졌다. 그래서 고갱의 생애를 알아본 뒤 다시 이 글들을 읽었다. 의외로 이 책의 글들은 놀라울 정도로 고갱의 생애를 반영하고 있었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이 글들을 썼는지 이해가 갈 듯도 싶었다.

〈달과 6펜스〉라는 소설을 한 번쯤은 읽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인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인물은 이기적이지만 천재적인 괴짜 화가로 그려지는데, 이 인물의 모델은 바로 필자인 폴 고갱이다. 하지만 고갱은 그 소설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괴짜는 아니었다. 최소한 이 책을 읽는 내 느낌으로는 그랬다. 그는 세상을 상관 않고 자

신의 길만 가는 이기적이고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의 빈곤과 고독에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은 그의 세상 안에서의 모든 고난들을 반영했을 뿐이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천재성은 그의 가난과 고독감, 병마와 딸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엮여 있는 작품이 이 책의 이름이며,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기도 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이다. 그는 이 작품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그린 후 자살을 기도했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실패했다. 그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의지대로 하지 못한 세상에 상처받은 그런 한 인간이었던 것이다.

이 책은 무언가 큰 감명을 주는 책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객관적이거나 사실적인 책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 책이 내게 뭔가 아릿한 감정을 느끼게 해 준 것은 이 글들은 세상 안에서는 환영받지 못해도 자신의 내면의 모습과 생각 그리고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나타냈기 때문인 것 같다.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쓴 이 글들은 처음 읽었을 때는 거부감이 들 정도로 이질감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왠지 글들이 마음 속에 와닿는다. 아마도 폴 고갱이라는 한 인간의 삶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찬송가 때문에 살아난 사람

김수호(희락 1구역)



남북 이산가족들의 상봉장면을 볼 때마다 필자는 20년 전(1982년 10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던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사장)의 주일 설교 내용이 항상 머리에 떠오른다. 즉 '그 날 그 설교 내용 중의 주인공도 복녔에 두고 온 아내를 만났을까?' 하는 궁금증이다. 그래서 20년 전 그 날의 설교 내용을 메모해 둔 노트를 다시 찾아 정리를 해 보았다.

6.25 전쟁이 치열하던 1950년 어느 날 삼팔선을 넘어 남하하던 민간인 복장의 인민군 첩자들이 미군 첩보부대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들은 피난민들 속에 끼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후퇴하는 유엔군의 후방 교란과 우리 국군의 부대 이동 등 중요한 공작, 파괴 그리고 요인 암살 등 특수 임무를 띠고 있었다. 특히 당시의 전황은 유엔군과 국군이 계속 후퇴를 하는 상황에서 체포한 북한 간첩들의 감시와 수송, 그리고 제반 관리상 위험이 따르게 되자 유엔군은 이들에게 전향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유엔군 사령부로부터 이들 첩자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그런데 이 간첩들을 처형하기 직전 유엔군의 한 장교가 한국군 통역장교에게 이 간첩들 중에 혹시 교회에 나가는 자가 있는지를 알아보게 하였다. 그러자 간첩 중 한 사람이 가슴에 십자가를 그려 보이며 기도하는 흉내를 냈다. 이 모습을 유심히 보던 유엔군 장교는 그 간첩을 살려주기 위해서 옆으로 나가 서 있으라고 했다. 그러자 눈치를 챈 다른 간첩들도 모두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옆으로 나가 서려고 했다.

이때 유엔군 장교는 한국군 통역장교에게 간첩들의 행동에 의심이 간다면서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자 한국군 통역장교가 다시 유엔군 장교에게 잠시 컷속말을 하고 나서 "너희들 중에 정말 교회에 나갔다면 찬송가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즉 찬송을 정확하게 한 곡이라도 부르는 자만 옆으로 나와라."고 했다. 그러나 간첩들은 아무도 찬송을 부르지 못했고 결국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금방 탄로가 난 것이다. 그런데 이들 간첩들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 옆에 있는 동료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찬송가 363장이었다. 1절이 끝나자 그는 다시 2절을 불렀다. 뜻밖에도 이날 통역장교는 자신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간첩이 부르는 찬송의 가사는 물론 박자 한 군데도 틀리지 않고 부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2절이 끝나자 이 간첩은 또 3절을 불렀고 4절을 부를 때는 울기 시작했다. 통역장교는 4절 찬송이 끝나기도 전에 유엔군 장교에게 다가가 이 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 분이 틀림없다고 자

신있게 증언했다. 그러자 유엔군 장교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런데 왜 울면서 찬송을 부르지?"하고 궁금하다고 했다.

결국 이 간첩은 찬송 때문에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혼자만 극적으로 살아 남았다. 재차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사람은 피난길에서 이들 간첩들에게 강제로 붙잡혀 이들과 함께 피난민으로 위장한, 인민군도 간첩도 아닌 순수 민간인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교회 문턱도 밟아본 적이 없고 오히려 교회 나가는 사람을 극심하게 핍박을 했던 사람이었다. 그럼 교회도 나가지 않았고, 또 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어떻게 찬송은 그렇게 잘 불렀을까? 그 기막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한편의 신과 연극을 감상하는 기분이다. 내용인즉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부인이 시집을 와서 남편 몰래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 어느 날 남편에게 들키고 말았다. 불같은 성격의 남편은 부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창피를 준다면 온 동네 골목으로 끌고 다녔다. 그러나 주일이 되어 교회의 새벽 종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면 부인은 오늘도 남편에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로 달려간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는 그 시간만은 남편에게서 받은 핍박도 매 맞은 상처도 창피 당한 일도 모두 다 잊어버리는 행복한 시간이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뿐 교회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남편은 어김없이 대문에서 기다리다가 부인의 머리채를 낚아채고 부엌으로 끌고 가 따귀를 후려치며 온갖 욕설과 함께 매질까지 하게 된다. 매를 맞고 난 부인은 부엌에서 울면서 다시 찬송을 부른다.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부인은 교회를 중단 없이 10년을 다녔으며 특히 남편을 위한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은 나날이 성숙해졌다. 특히 딸아이를 신앙적으로 키우려는 부인의 의지와 딸아이 만큼은 절대 교회에는 못 보낸다는 남편의 단호한 의지가 서로 상극을 이루는 10년의 세월이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싸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말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부인이 유달리 이 찬송만 부르는 것은 가사 내용이 남편으로부터 핍박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신의 형편과 너무나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나 설거지를 할 때는 남편이 곁에

없기 때문에 이 찬송을 항상 불렀다. 그리고 주일날 남편에게 꺾박을 받는 날은 마치 분이라도 푸는 기분으로 이 찬송을 더 큰 음성으로 불렀다. 그때마다 남편은 "이 천치 같은 여자야, 10년 간 교회를 다니면서 노래라곤 그것 하나밖에 못 배웠느냐?"고 약을 올린다. 그러면 부인은 "내가 찬송만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줄 아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겠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때문에 당신을 혹시 우리 동네 면장이나 또 목사를 시켜줄지 누가 알겠소!" 남편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 인간이 이제는 실성을 했네. 뭐! 내가 목사가 된다고 희한한 소리까지 다하네."하고 버럭버럭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른다. 그런데 남편은 부인의 이 한 가지 찬송만 10년 간을 매일같이 듣다보니 1절부터 4절까지 가사 전부를 저절로 다 외었고 박자까지도 훤히 알고 있었다. 소위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상황을 비유한 것일까?

그러나 이들 부부에게도 드디어 서로가 이별을 해야 할 운명의 날이 왔다. 6.25전쟁이 터지면서 부인은 그래도 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옷가지와 양식을 준비해서 남편에게 빨리 피난 대열에 끼여 남쪽으로 가라고 재촉을 했다. 부인은 형편을 봐서 아이들을 데리고 곧 뒤따라 가겠다고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남편을 억지로 밀었다. 남편은 지난날 그렇게도 자신에게 꺾박만 받았던 부인과 잠시나마 헤어진다는 현실 앞에서 갑자기 그날 따라 부인의 모습이 너무나 측은하기 짝이 없었다. 부인과 딸의 처량한 모습을 몇 번이나 뒤돌아 보면서 삼팔선을 넘어 남쪽으로 향했다.

한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남편은 피난을 가던 중에 인민군 첩자들에게 붙잡히는 신세가 되었고 드디어 총살 직전 그야말로 죽음의 일보직전까지 가는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도 꺾박했던 부인의 찬송가 때문에 개죽음을 당할 처형 직전에 기적적으로 살아난다. 그가 처형 직전

찬송가 4절을 부를 때 자신도 모르게 엉엉 울면서 찬송을 부르는 그 내막을 유엔군 장교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남쪽으로 넘어 온 이 사람은 뒤늦게나마 지난 날 부인의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로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다. 부인과 헤어진 지 40년의 세월이 흘러 어느덧 원로 목사가 된 그는 어느 날 군당국의 배려로 휴전선 철책선까지 가서 도보로 불과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자신의 고향마을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었다. "당신은 10년 세월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이 꺾박만 받으며 살았지. 교회 갔다올 때마다 나는 당신의 머리채를 잡고 그 연약한 얼굴에 사정없이 따귀를 후려쳤지! 이 어중이떠중이 같은 여자야! 이 천치 같은 여자야! 이 미련한 꿈 같은 여자야! 그 수많은 욕설과 꺾박을 받으면서도 당신은 말대꾸도 없이 그저 바보 같이 찬송만 불렀지. 그때 당신의 그 찬송이 내 생명을 구해주었고 당신이 기도한 대로 나는 목사가 되었는데 이제 나는 당신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소! 딸아이는 어떤 곳에 시집을 보냈는지, 그리고 당신은 지금도 혼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도 부엌에서 나를 생각하며 그때의 찬송을 지금도 부르고 있는지..."

지난날 그토록 꺾박했던 부인으로부터 저절로 배운 찬송가 363장을 눈물 속에 계속, 부르던 원로목사는 보초병의 위로를 받으며 철책선을 뒤로하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옮겼다.

<내 모든 괴롭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은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1) 김수호님은 타 교회에서 장로장립 후, 우리 교회로 이명하신 분입니다.

교회 소식

1. 11월 6일(수)은 수능시험 관계로 정신학교의 출입이 통제되어 새벽기도회가 없습니다. 수요예배는 있습니다.
2. 11월 11일(주일)은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3. 특별새벽기도회가 11월 11일(월)부터 16일(토)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강사: 김동호 목사(높은뜻송의교회 담임목사), 주제: '좋은 사람'
4. 11월 20일 수요예배시간에 입교·세례식이 있습니다. 입교나 세례를 원하는 분은 입교·세례교육신청서를 작성해서 안내대에 제출해 주십시오. 입교·세례교육은 11월 17일(주일)까지 오후 1시15분부터 2시까지 제1집회실에서 있습니다.
5. 상담부 주관 하반기 집중상담세미나가 11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오전 10시~12시에 제1집회실에서 있습니다.
강사: 김종렬 박사(한국상담치료연구소장), 주제: '융(Jung) 심리학과 상담'
6. 지하주차장은 노약자·장애인·교역자를 위한 전용공간입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백경숙 선교사(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보내는 선교사님들께 인사 드립니다.

새해의 밝음이 희망과 함께 시작되어 올망졸망 열매 맺어가는 성도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추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금빛 넘실거리는 벌판에 허수아비를 세워도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참새는 누렇게 익은 낱알을 배불리 먹고 한 바탕 벌판을 휩쓸어 놓고 가는 것처럼 선교지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두 개라면 상한 심장은 치료해서 잠시 보관하고, 건강한 심장으로 다니고 싶었던 시간들이 얼마간 있었습니다. 활동하는 사역의 깊이만큼이나 방해꾼들이 많아 울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면 따뜻한 해 아래서 옛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 날이 러시아 땅에 속히 오길 기대하며, 오늘도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선교지 소식이 조금 늦어 죄송합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저와 사역지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을런지요? 사역의 방향과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면서 의논할 대상은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오직 주님뿐이었습니다.

지난 9월 21일은 10명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서울 주님의교회 강석영 목사님과 선교위원회에서 참석해 주셔서 교회의 영적 성장에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님의교회에서 농아들의 유치원과 학교에 상당한 물품을 기증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두가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파크스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어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여러분의 기도 열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 13일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의 러시아어로 된 두 번째 조그마한 설교집이 조만간 인쇄되어 문서 선교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자 양육교육을 받는 성도들은 다른 도시에서 열리는 농아인 신앙 세미나 참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상인들보다는 조금 미숙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때론 저를 많이 감동시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연해주에 농아인들을 위한 직업전문 학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해주의 젊은 농아인 청소년들은 학교를 졸업해도 상급학교 진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주 먼 도시에 있는 학교로 진학해야 하므로 대부분 청소년들이 진학을 포기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기도 모음이 밑알이 되어 연해주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전문학교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님

들께서도 기도의 밑알이 되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농아인 학교를 졸업한 농아인 고아들을 위한 기숙사도 함께 지어 세상에서 소외 받지 않는 건강한 청소년들이 배출되길 두 손 모아 기도하며 그 날이 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한탄하며, 매일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면서 여러분의 소망도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사랑 많으신 주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2년 10월 8일 늦은 밤

러시아 선교지에서 사라의 빛진 작은 중,

백경숙 선교사 드림

시

그믐달

정해춘 안수집사(충성 5구역)



목표를 향해
화살을 쏘고
그 검은 장막에
누가 걸어 놓은 활이런가.

아직도 활시위가 떨리고 있고,
화살은 저 바벨론으로 날아 갔는가,
먹장 같은 가슴으로 기도 드리며
어느 여인이 몰래 가슴으로 품은 것인가.

흐르는 강물에 먹 갈아
호젓이 고독한 배 한 척을 띄운다.
예루살렘을 꿈꾸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성경 퍼즐 지난호 정답

■ 세로

1. 가브리엘 3. 맛디아 5. 세례요한 7. 데라 9. 옴바 10. 엘리바스 12. 요시아 14. 디두모 16. 르호보암

■ 세로

2. 브엘세바 4. 디모데 6. 한니엘 8. 라기스 11. 리버디노 13. 야고보 15. 모압

■ 가로열쇠

1.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겔 48:30~35)
3. 유대인들이 선생에게 쓴 존칭(마 23:1~10)
5.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중 하나로서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다' 라며 호되게 책망 받은 교회(계 3:7~22)
8. '성별된 자' 라는 뜻으로 나실인과 같음(암 2:6~12)
12. 여호와께서 선지자 호세아와 부정한 아내 사이에 태어난 딸에게 붙여 준 이름(호 1:1~11)
13. 다윗왕의 충성된 군인이며, 밋세바의 남편(삼하 11:1~11)

■ 세로열쇠

2. 슬로브핫의 다섯 딸 중 하나로서 부친이 아들 없이 사망하자 딸들의 상속을 요구하여 관철함(수 17:1~6)
4. 엘르아살의 아들인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와 예배의 정숙한 규범을 세운 사람(민 25:1~13)
6. 빌레몬에게 죄를 짓고 로마로 도망하여 있던 중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몬 1:1~19)
7. 에스더의 부친이며, 모르드개와 삼촌(에 2:10~18)
9.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며 그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심(눅 8:40~52)
10.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잡아 제사하려던 산(창 22:1~14)
11. 주께서 부활하심을 의심하여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야 믿었던 사람(요 20:21~31)

■ 정답 보내주신 분

임창복(온유 12구역), 정순모(온유 9구역), 김승자B(충성 11구역), 정해연(희락 12구역), 이승현(유년부 2학년)께서는 교회 사무실에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정답을 아시는 분은 12월 8일까지 정답을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보내신 분 가운데 다섯 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문의 416-5181).

알 립 니 다

함즐함을 출판부에서 알립니다.

함즐함을 출판부에서는 성도님들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하늘을 향해 다 함께 웃고, 힘든 일도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원고를 기다립니다.

시론, 수필, 제언, 시, 감상문, 간증 등의 원고를 기고하시는 분의 사진과 함께 12월 8일(주일)까지 교회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문의 김완중 안수집사).

